

# 코로나에 노조파업... 지엠·르노삼성·쌍용 '외우내환' 끙끙

>> 1면 '신차효과'서 계속

한국지엠·르노삼성, 적자 전망  
노조 갈등으로 생산손실 잇따라  
지지부진 임단협, 정상화에 발목  
'회생절차 신청' 쌍용차 파산 위기

글로벌 시장에서는 전체 판매량은 감소했지만 국가별 점유율을 높여가며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미국시장에서 8.4%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2012년 이후 8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유럽에서는 진출 이래 최초로 점유율 7% 고지에 올랐고, 인도시장에서는 해외 주요시장 중 유일하게 판매량을 늘리며 23.1% 점유율을 나타냈다.

현대·기아차는 수년 전부터 추진해 온 조 단위 자율주행, 로봇기술 투자와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에 기반한 전동화 전환으로 애플로부터 애플카 협업을 제안받는 등 세계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특히 애플카 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기아는 올해 새로운 사명을 선보이며 모빌리티 혁신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기아는 기존 명칭인 '기아자동차'에서 '자동차'를 제거한 '기아'로 사명을 바꾸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사업 영역을 확장할 방침이다.

### ◆ '실적'·'노사 갈등' 설자리 잃은 '외투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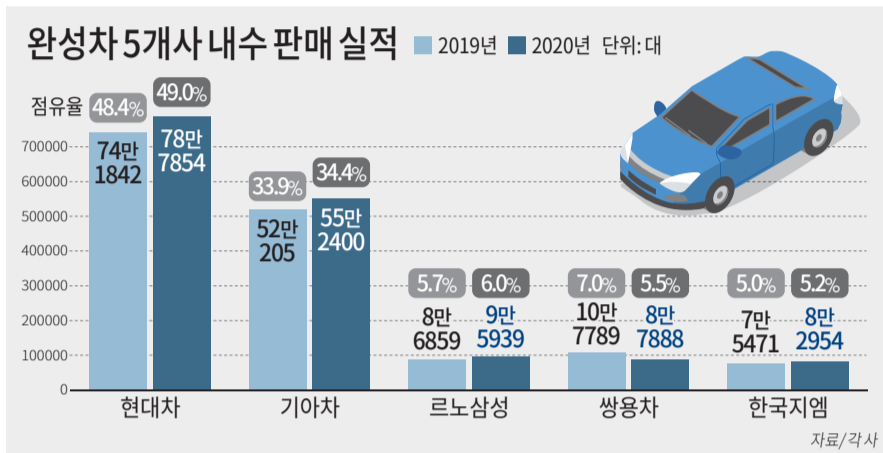
외국인 투자자동차 기업인 한국지엠과 르노삼성, 쌍용차는 코로나19 등 악재가 겹치면서 갈수록 설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해외 수출 물량은 물론 내수 시장에서 좀처럼 힘을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지엠 부평공장.



르노삼성 부산공장 전경.



지난해 내수 판매량을 보면 르노삼성은 9만5939대 6.05%, 쌍용차 8만7889대 5.5%, 한국지엠 8만2954대 5.2%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수출 물량 감소와 내수 판매 부진으로 이들 3사는 지난해 적자의 수렁에 빠졌다. 이 때문에 미래차 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악순환은 되풀이 되고 있다.

지난해 흑자전환이 예상됐던 한국지엠은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 갈등으로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상반기 코로나19 영향으로 6만대 생산 손실을 기록

한데 이어 연말에는 노조가 부분파업을 진행하며 2만5000대의 생산손실이 추가로 발생했다.

르노삼성도 닛산의 로그위탁생산물량 계약 종료와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 갈등 등으로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르노삼성은 현재 임원을 40% 줄인데 이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노사갈등이다.

지난 28일 진행된 '제8회 산업발전포

럼 겸 제12회 자동차산업발전 포럼'에서 크리스토프 부페 르노삼성 CFO는 "르노삼성의 부산 공장은 스페인 공장보다 임금도 비싸고 세금도 높다"며 "한국에서 외투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의 고임금 구조를 한국 공장의 경쟁력 저하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부페 CFO는 "깊게 얘기하진 않겠지만 부산 공장 제품의 생산 원가는 스페인 생산 제품보다 1100달러 정도 비싸다"며 "경쟁력이라는 것은 작은 부분으로부터 생긴다"고 말했다. 르노그룹 내에서 부산공장과 경쟁 관계인 스페인 바라달리드 공장의 임금은 부산공장의 62% 수준이라는 것이 부페 CFO의 설명이다. 현재 르노삼성은 국내 외투 자동차 기업 중 유일하게 2020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마무리 짓지 못한 상태다.

이날 카허 카젠 한국지엠 사장도 매년 반복되는 노조 쟁의로 국내 투자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카젠 사장은 "한국에서 겪는 지속적인 (노조) 쟁의 행위가 투자를 어렵게 한다"며 장기 성장 촉진하

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가장 큰 문제는 쌍용차다. 쌍용차는 올해 파산이라는 최대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해 12월 외국권 금융사에 600억 원의 대출을 갚지 못한 것이 발단이 됐다. 같은달 21일 산업은행 대출금 900억 원도 연체하며 현재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상태다. 또 쌍용차는 최근 마힌드라와 HAAH오토모티브 간 매각 협상이 시한을 넘기면서 결렬, '마지막 카드'인 '프리패키지드 플랜'(P 플랜)을 가동한 상태다.

'P플랜'은 정식 회생절차 개시 전 미리 회생계획안을 내고, 법원의 인가 직후 계획안에 따라 채무 조정, 신규 자금 수혈을 진행해 이른 시일 내 법정관리를 졸업하게 하는 제도다.

이는 결국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협력업체 등 채무자 부채의 절반 이상을 가진 채권자가 동의해야 가동될 수 있다.

쌍용차는 P플랜을 통해 감사 후 유상증자 방식으로 HAAH로부터 2억5000만 달러(약 2770억 원)를 긴급 수혈받을 예정이다. HAAH는 이를 통해 쌍용차의 지분 51%를 확보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기아와 외투기업 3사의 시장 점유율이 좁혀지지 않으면 향후 견잡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현재는 현대차·기아를 제외하면 신차나 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할 여력이 안되기 때문에 현대차그룹의 내수 점유율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5개 완성차가 건전한 경쟁 체제를 구축해야 시장 전체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 다시 날아오른 SK하이닉스, 슈퍼사이클 향해 '하이킥'

당기순이익 4.7조원, 137% '굉충' D램 수요 ↑... 슈퍼사이클 신호탄

고부가가치 사업 중심 수익성 제고  
인텔 인수 등 내부역량도 강화 전망

SK하이닉스가 다시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 2018년 '슈퍼 사이클'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 수익성 회복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9일 지난해 매출액 31조9004억원에 영업이익 5조126억원을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년과 비교하면 매출(26조9907억원) 18%, 영업이익(2조7192억원) 84% 증가한 수치다. 당기순이익도 지난해(2조91억원)보다 137%나 많은 4조7589억원을 달성했다.

SK하이닉스 경영지원 담당 노종원 부사장(CFO)은 "지난해 글로벌 팬데믹과 무역 갈등의 격화로 메모리 시장은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면서도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서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당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18%, 84%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4분기는 매출액 7조9662억원에



SK하이닉스 이천 행복문.

/SK하이닉스

영업이익 965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298%나 큰 성장을 보였다. 당초 올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 불황 우려가 제기됐지만, 코로나19로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다시 슈퍼사이클로 진입하는 모습이다.

SK하이닉스도 올해 5G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와 신규 데이터센터 투자 등으로 D램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공급량 증가는 제한적으로 예상하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낸드플래시 역시 상반기 중으로 업계 재고가 줄어들면서 하반기 다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내

다봤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2018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당시 SK하이닉스 실적은 매출액 40조4451억원에 영업이익 20조843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26.8%, 415.8% 많다.

수익성 제고가 관건이라는 얘기도. 당장 4분기 D램과 낸드 출하량은 전년 기보다 11%, 8% 증가하면서 수요 증가를 확인했지만, 평균 판매가격은 오히려 7%, 8% 하락했다.

/김재용 기자 juk@

### 'FTA 지원 사업' 공고 총42개, 6527억 투입

산업통상자원부는 8개 정부부처와 16개 유관기관의 '2021년도 FTA 활용지원 사업'을 1일 통합 공고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이 정부 각 기관에서 시행하는 FTA 활용 지원사업을 쉽게 찾아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FTA 활용지원 사업을 통합 공고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추세를 보면, 통합 공고되는 사업 건수와 예산 규모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각 기관의 FTA 활용지원 사업 예산은 약 6527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5% 증가했다.

주요 지원 내용은 FTA 활용 촉진, FTA 해외시장진출, 산업 경쟁력 강화, 한-중 FTA 특화사업 등 4개 분야 42개 사업이다. 사업을 통해 수출기업이 FTA 특혜관세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고, 국내 기업이 FTA 체결 상대국 시장에 진출하도록 수출바우처, 무역보험 등을 제공한다.

/세종=한홍수 기자 hys@